

##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대적의지 엄숙히 선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에 관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최우선국방건설전략이 엄격히 실행되고있는 가운데 11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

이번 시험발사는 조선반도의 군사정치정세를 위협계선으로 집요하게 몰아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망동이 한계를 초월하고 주권국가의 자위권까지 사사건건 도발로 매도하는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궤변들이 유엔무대에서까지 합리화되고있는 간과할수 없는 형세하에서 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는 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운용민음성을 겸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접고도 6,040.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km를 4,135s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시험발사결과를 통하여 우리 국가전략무력을 대표하게 될 신형중요전략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세계최강의 전략무기로서의 위력한 전투적성능이 뚜렷이 검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시험발사성과에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최근 우리 국가주변에서의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이 로골화되고있는 위험천만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압도적인 핵억제력 제고의 실질적인 가속화를 더 긴절하게 요구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현정세하에서 미국과 남조선것들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적대응놀음은 곧 자멸이라는것과 저들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더욱 명백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을 피력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들려는 적들의 침략전쟁연습 광기에 우리 당과 정부의 초강경보복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와 전쟁연습에 집념하면

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사적위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변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담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핵전략무기들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국방건설전략에 대하여 다스금 강조하시면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식의 주체전략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국방과학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 전략핵무기부대 전투원들은 공화국핵무력강화에서 중대한 리정표로 되는 력사적인 중요전략무기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녀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여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주시며 국방과학자, 전투원들을 열렬히 고무해주시고 국가핵전략무력강화를 위한 힘찬 진군길에 더 큰 힘과 백배의 용기를 안겨주시면서 영원한 승리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절대충배와 열렬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앞으로도 강위력한 우리의 전략무력을 가속적으로 건설하며 핵병기를 더욱 억척같이 틀어잡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길이길이 보위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